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읽어야 할

이슬람의 로맨스

الرؤمسية بالغة الكورية

Prof. Dr. Abdurrahman Al-Sheha 저

최영길 옮김

최영길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아랍어를 전공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이슬람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슬람학을 전공하고 수단 움두르만 이슬람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슬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젓다 이슬람문화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담당 전임교수로 근무하였고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대학교 초청객원교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중고등학교 아랍어 국정교과서 교재 편찬 심의위원, 숲사랑소년단 이사장, 국제자연환경 교육재단 이사장,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이슬람회의 기구 집행이사, 그리고 IMAX 벤처기업과 LG 전자 자문교수로 있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에서 이슬람관련 과목을 강의하였고 (재단법인)한국이슬람교 사무총장과 할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아랍지역과 명예교수, 메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이슬람 총연맹 최고회의의 위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이사장으로 있다.

꾸란의 의미 번역을 비롯하여 예언자 무함마드, 인간 무함마드,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무함마드의 언행록, 아랍어-한글 사전, 꾸란 어휘사전, EBS 입에서 톡 아랍어, 이슬람문화, 아랍에서 출발한 이슬람역사와 문화,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이슬람 지식 등 68편의 아랍어와 이슬람 관련 역사와 저술을 두고 있다.

1970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 메달을 받았고,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아올림픽 조직위원회 포상, 200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 국제번역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표창 그리고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역자 서문

이번 학기에는 ‘아랍사회와 여성’이란 교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생소한 과목이다. 한 이불을 덮고 36년을 살아온 아내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가, 아랍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지만, 걸프지역 아랍 여성과는 대화조차도 쉽지 않은 여성에 대해, 그것도 남자 교수가 여성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한 여성에 대한 나의 경험을 말한다면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인들에게 아랍 여성은 베일을 쓰고 일부다처제도의 그늘 아래 희생양이 되어 일생을 살아가는 가엾은 여성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 두 시간 정도면 모르겠는데 48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 사우디아라비아 킹 사우드 대학교 압두라흐만 알-쉐하 교수가 저술한 『al-rumansiyah fil islam: 이슬람의 로맨스』란 책이 아랍 여성에 관한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그 교수의 저서 『이슬람의 메시지와 에티켓』이란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인연이 계기가 되어 그 뒤를 이어 『이슬람의 로맨스』란 책을 번역하기로 저자와 합의를 하고 2015년 10월 2

일부터 본서 번역에 들어갔다. 다른 책들도 그랬듯이 본서 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번역에 들어갔다. 책 제목이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번역 작업은 가속도가 붙었다. 그 결과 10월 14일 10시 30분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conrad istanbul 호텔 천사의 방에서 초기 번역을 마칠 수 있었다.

본서는 아내를 위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로맨스를 소재로 구성된 책이다. 꾸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언자의 모범을 본받는 것이 훌륭한 무슬림이다.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로맨스는 아내를 위한 모든 남자의 의무라는 것을 이슬람의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본서는 남자에 대한 아랍 무슬림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22개국 아랍사회를 포함한 57개국 이슬람사회의 모든 무슬림 여성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슬림 여성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일부다처 제도의 그늘에서 희생양이 되어 일생을 살아가는 가엾은 여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2015. 10. 14

conrad istanbul 호텔

천사의 방에서

차례

*역자 서문 / 3

1. 저자 서문 / 7

2. 무슬림의 자질 / 10

3.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 / 26

4. 예언자께서 부인들과 함께 한 레크리에이션 / 29

5. 이슬람의 친교와 동정 / 33

6. 예언자의 인간적인 품행 / 45

7. 예언자의 사회적 면모 / 49

8.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사회적 매너 / 63

* 나가면서 / 74

1. 저자 서문

우리는 본서에서 이슬람의 로맨스와 관련된 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다. 이슬람 종교를 성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생활방식이자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언자¹⁾께서는 교우들에게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을 심도 있게 가르치셨고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²⁾의 말씀이다.

진실로 사도는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가 본받아야 할 가장 훌륭한 모범 자이니라(33:21)

예언자께서 남기신 가장 이상적인 모범은 삶의 방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이 주제를 조명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자께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여주신 훌륭한 매너들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다음은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 예언자 무함마드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쌀랄라후 알라이 와 쌀람’ 이란 존칭어를 붙인다. 이 문구의 의미는, ‘하나님이며, 그 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라는 뜻이다.

2) 예수 이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이전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일위 일체의 하나님을 말한다. 이 하나님을 아랍어로 알라(Allah)라고 부른다. (역자 주)

실로 그대는 고상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자이니라(68:4)

예언자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메시지 모두를 전달하셨다. 한 구절도 빠뜨림 없이 온전하게 전하셨다. 예언자께서 보여준 행위,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인정한 것과 승인한 것은 이슬람법의 합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무슬림은 예언자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축복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를 따르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3:31)

하나님과 무슬림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사랑이다. 그래서 무슬림은 그 사랑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킨다. 그 사랑은 저속한 욕망을 초월하여 타인에 대한 자비와 애정에 근거한 고상한 도덕률에 따른 매너를 말한다. 가장 고상한 사랑의 한 형태는 자신보다 예언자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속세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너희 선조들과 너희 후손들과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부족과 너희가 획득한 재산과 거래가 없을까 두려

위하는 상품과 너희가 바라는 주거지들이 하나님과 사도와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9:24)

이슬람은 힘들고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생활방식이다. 무슬림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슬람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슬람은 믿음과 법, 매너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자신의 수양과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내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슬람의 보편적 개념은 공동체 복지에 초점을 두고 교양과 예절이 지배하는 문명사회건설을 목표로 한다. 어떤 특정 시대나 어떤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진실한 신자가 누구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진실한 신자란 자신의 재물과 생명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요 무슬림이란 타인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욕된 말을 하지 않는 자이지요.” (silsilah 549)

2. 무슬림의 자질

무슬림은 바르고 옳은 행위를 사랑하며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도 전혀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부자유 행복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면 진정한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사히흐 알-자미이 100)

무슬림이란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편견이 없어야 한다. 예언자께서는 군대를 파견할 때 아군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었다.

“적군의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의 어린이를 비롯하여 여성과 노인들은 절대로 살해하지 마시오. 길을 방해할 때는 예외이지만 나무 한 그루도 절단하지 마시오. 동물을 살해하거나 동물의 사체를 절단하지 말 것이며 기만하지 마시오.” (바이하끼 9/91)

무슬림은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잔인한 행위에 강력히 대항한

다. 예언자께서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당나귀 얼굴에 소인(燒印)을 찍으려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나귀 얼굴에 소인을 찍거나 얼굴을 때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아부 다우드 2564)

무슬림은 스틸을 느끼기 위해 혹은 취미나 재미삼아 사냥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남긴 말이다. “우리는 사도와 함께 나간 여행길에서 우리는 알을 품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다. 한 동료가 알을 취하자 어미 새는 필사적으로 없어진 알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누가 이 어미 새를 이렇게 만들었소? 알을 빨리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아부 다우드 2673)

개미 언덕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본 예언자께서 누가 불을 붙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교우들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사용하여 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불로 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리입니다.” (아부 다우드 2675)

무슬림은 최선을 다하여 공공시설이나 공원을 유지하고 보존

한다. 절대로 남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더럽히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저주받을 두 가지 행위를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다니는 길에 용변을 보는 행위와 그늘진 곳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가 저주받을 두 가지 행위이지요.” (아부 다우드 25)

무슬림은 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는 것도 하나의 자선입니다.” (아부 다우드 5243)

무슬림은 자원을 보호하여 자연과 환경을 보존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열매가 달린 나무를 자르지 말 것이요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지 말 것이며 믿는 자를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부 다우드 398)

무슬림은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종말이 오더라도 자신의 손에 씨앗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그 씨앗을 심도록 해야 합니다.” (silsilah 9)

무슬림은 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쓴다. 그리고 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지시한 내용을 자베르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소변을 금지하셨습니다.” (무슬림)

무슬림은 물이 필요한 각 개인에게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한다. 생명의 기본 요소를 독점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다음 세 가지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초와 물과 불이지요,” (아부 다우드 3477)

무슬림은 이 세 가지 자원을 보존하여 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특히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싸이드에게 하신 말씀이다.

“물을 낭비하지 마시오. 흐르는 강물을 사용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아흐마드 12/23)

비록 몇 가지만 언급했지만, 이것들은 무슬림이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몸으로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자질은 의심할 여지없이 믿음을 증가시켜 보다 더 훌륭한 무슬림을 만들어 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시오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3:31)

이것은 이슬람의 본질이자 핵심으로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저속한 욕망을 승화시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게 하는 말씀이다.

본 소책자에서는 예언자와 예언자의 부인들과 관련된 로맨스
만을 다룰 것이다. 이슬람이 도래하면서 여성에 대한 학대와 억압
시대는 끝이 났다. 이때부터 여성의 위상이 격상되고 남성과 여성
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었다. 이슬람 시대의 제2대 칼리프
였던 우마르 빈 알-카타브의 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슬람 이
전 시대에 우리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습
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된 후에야 비로소 여성의 권리가 주
어졌습니다.” (부카리 4913)

이슬람이 도래하면서 예언자께서는 공개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남자는 예의를 갖추어
여성을 대하라고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가장 훌륭한 남자란 여성들을 최상으로 대우하는 자이지
요.” (사히흐 알-자미이 3316)

예언자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라 여성들은 명성을 얻는 역할을 하게 되고 높이 존경받게 되었다. 남성보다 더 우월적인 역할과 존경을 받기도 하였다. 이슬람이 부여하고 있는 여성의 위상에 대한 많은 전언들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성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무슬림 1468)

“훌륭한 남자란 그의 아내에게 충실한 자요 비천한 남자란 아내를 조롱하는 자이지요.” (silsilah 845)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자란 예의바른 매너로 아내에게 친절한 자이지요.” (티르미지 2612)

예언자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무척이나 친절하셨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파가 그분을 찾아왔을 때 그녀를 돕기 위해 길을 나섰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또 다른 여성이 도움을 청하자 예언자는 최선을 다하여 그녀를 도와주셨다. (무슬림 2326)

예언께서는 딸이나 자매를 양육하고 보호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두 명 혹은 세 명의 딸, 또는 두 명 혹은 세 명의 자매들이 결혼할 때까지 또는 그녀들을 양육한 자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되지요.” (타그립 1970)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나 우월주의 제도들은 중단되어야 한다. 피부색, 민족, 언어, 신분, 가문 등 인간이 만든 다른 장애물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예언자께서는 모스크 청소부 흑인 여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언자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며칠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그녀를 위한 장례예배를 드렸다. (이븐 마자하)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본다. 다만 유산과 증언 숫자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동등하다. 남녀의 의무도 그와 마찬가지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성은 남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제이지요.”

(아부 다우드 236)

이 전언은 남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는 남성들을 위한 축복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은 마음이 경건한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지요.”

(무슬림 1467)

남자의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경건하고 착한 여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네 가지 행복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여성과 결혼하여 넓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이웃을 두고 안락한 교통수단을 갖는 것이지요.” (타그립 2576)

결혼은 신앙의 절반을 완성한 것이라고 예언자께서 강조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결혼할 때 신앙의 절반이 완성되지요. 그러므로 다른 절반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사히흐 알-자미이 6148)

예언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성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셨다.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처럼 여성을 대하라고 하셨다. 더 나아가 자식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의무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이며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천국은 어머니 발밑에 있지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우선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

졌다. 그 사람이 물었다. “사도님, 누구를 가장 잘 모셔야 합니까?” 이에 사도께서 대답하시길, “당신의 어머니이지요.” 그 남자가 또 물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요?” 사도께서 대답하시길, “당신의 어머니이지요.” 그 남자가 또 물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요?” 사도께서는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 “당신의 어머니이지요.” 그 남자가 또 물었다. “어머니 다음으로는 누구입니까?” 이에 사도께서 대답하시길, “어머니 다음에는 아버지이지요.” (부카리 5971)

예언자께서는 여성을 존중함에 아내처럼 존중하라고 하셨다. 교우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다. 아므르 빈 알-아스가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예언자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나의 아내 아이샤입니다.” 그가 또 물었다.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누구입니까?”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인가요?”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우마르 빈 알-카탐입니다.” (타르미지 3872)

이것이 예언자께서 여성들에 대한 매너입니다. 이러한 예언자의 고상한 성품과 매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성들에게 친절해야 되느니라 만일 너희가 그녀들을 싫어한

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행의 일부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4:19)

이와 관련하여 석학 이븐 카씨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성들에게 말하고,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게 대하고, 잘 입히고, 자신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어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매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훈을 배우고 난 교우들은 바로 이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 교양과 예절로 나를 아름답게 꾸몄다. 나도 나를 위해 아내가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내에게 아내의 모든 권리를 주지 않고 아내로부터 나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느니라(2:228)

진실한 무슬림은 가족 모두에게 친절하고 상냥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맘 아흐마드가 한 말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다음의 열 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1-2. 여성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사랑의 표

현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아내에게 인색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렴. 그렇지 않을 경우 너희 부부 사이에는 사랑의 결핍이 생겨 불화의 원인이 된다.

3. 여성은 엄격한 남자를 싫어한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위해 봉사한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상냥하게 아내를 대하라. 그리하면 부부 사이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흐른다.

4. 여성은 남편이 아내에게서 원하는 동일한 것을 남편으로부터 원한다. 그러므로 남편도 항상 여성에게 고운 말을 쓰고 외모도 갖출 것이며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향수도 사용하는 것이다.

5. 가정은 여성의 왕국이다. 그 안에서 여자가 여왕처럼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비록 밖으로는 표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너에 대한 반감을 품을 것이다.

6. 여자는 남편과 가족의 두 가지 사랑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아내와 가족 사이의 균형이 깨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 아니면 가족을 택하게 할 경우 여자가 너를 선택한다 해도 여자는 일상생활에서 너에 대한 미움을 갖게 될 것이다.

7. 여성은 휘어진 갈비뼈를 주축으로 창조되었다. 여성에게는 아름다움과 끌어당기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이것은 흠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실수를 했더라도 거칠게 대하지 마라. 거칠게 대하다보면 그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혼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여자의 실수를 모른척하지 말고 예의바르게 시정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아내는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8. 여성에게는 자신들에게 펼쳐진 축복을 망각하는 속성이 있다. 열 번을 잘해 주다가 한 번 실수를 하면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매너나 성격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잘못하면 이러한 아내의 모습이 싫을 수도 있고 아내를 포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아내에게 네가 싫어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

9. 여성은 체질상 허약하여 정신적으로 피곤한 시기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허약하고 피곤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을 경감하여 주신다. 이 시기에는 의무예배와 금식을 제외시켜 주셨다. 이 시기에는 여성을 더욱 배려하고 여성이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가벼운 일만 하도록 해야 한다.

10. 여성은 너의 포로와 같다. 이 포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 되고 동반자가 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딸들에게 말하는 충고가 있다. 움무 이

야스가 딸을 낳다 왕국의 통치자 아므르 빈 하자르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이렇게 충고하였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몇 마디 충고하고 싶구나. 조언으로 받아드리렴.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그 생활에 익숙해졌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낯선 한 가정에 들어가게 된다. 네가 남편에게 잘하면 네 남편도 너에게 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말하는 몇 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만으로 만족 하렴.

둘째: 남편 앞에서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으렴. 그리고 너에게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좋은 향기가 풍기도록 하렴.

셋째: 남편의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에 신경을 쓰렴

넷째: 부끄러운 곳을 노출시키라는 것 외에는 남편 말에 거역하지 안 된다. 남편 말을 거역하면 네가 편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니라. 남편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는 너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을 표출하지 말고 남편이 기뻐할 때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픔을 나타내지 마렴.

앞서 언급된 몇 가지 내용에서만 보아도 독자들은 이슬람이

중요시 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이슬람의 여성들이 억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본 소책자를 읽고 나면 예언자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언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가장 훌륭한 무슬림이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이지요.” (티르미지 3895)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준이다.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 예언자는 항상 분주했고 물질적 가난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하여 부인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불만을 품은 아내들에게 예언자와 함께 하던지 아니면 예언자를 떠나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그분의 아내였던 아이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나와 대화를 시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서둘지 말고 그리고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과 의논한 후 대답을 해

요.’ ”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들이 현세의 삶과 허례허식을 원한다면 이리로 오시오 세상을 즐기도록 자유롭게 하여 줄 것이니 이것은 해가 없는 이혼이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 사도와 내세를 원한다면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중에 선을 행할 자들을 위해 훌륭한 보상을 준비하여 두셨소 (33:28-29)

그러자 아이샤가 사도에게 물었다. “왜 이런 문제로 저의 부모님과 의논을 해야 합니까? 정말이지 저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사도와 내세를 원합니다.” 예언자의 다른 아내들과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지만 모두가 예언자 곁에 남아있기를 원했다.

(무슬림 1475)

이 이야기는 아내들이 예언자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는지를 가리키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아내들을 포로처럼 두고 싶지 않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자유를 주려고 했다. 예언자는 아홉 번 결혼하여 아홉 명의 아내를 두었다. 이들은 모두는 예언자와 함께 축복을 받으며 로맨틱하고 화평한 부부생활을 가졌다.

예언자는 역사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다. 공정한 비무슬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저명한 스코틀랜드 출신 작

가 토마스 카를리는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영웅들, 영웅의 신앙 그리고 역사의 영웅』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일찍부터 그는 사상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알-아민(al-Amin: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자)이라고 불렀다. 진리와 성실의 사내였다. 그가 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가 말하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는 항상 뜻을 품었다. 말이 무거웠다.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입을 열 때는 현명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말을 했다. 항상 문제에 대안을 내놓고 말할 가치가 있을 때만 말을 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건실하고 형제 같은 순수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진지하고 성실했으며 친절하고 상냥했다. 예의바르고 정이 많았으며 좋은 일로 웃을 때는 익살스럽기도 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였고 일을 할 때는 정열적이었다.

마이클 하트는 그의 저서 『랭킹 100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재했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최고 최대의 인물은 예수도 아니고 마르크스도 아닌 무함마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우리들의 평범한 상식으로는 놀라움이 아닐 수 없다.

3.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

이슬람은 균형 있는 삶과 일상생활을 강조한다.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것은 무슬림의 권리이기도 한다. 그러나 허용된 레크리에이션이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한 시간은 마음의 레크리에이션을 두고 한 시간은 다른 것을 위해 두시오.”

균형 있는 삶이란 미묘한 문제다. 이슬람 시대 초기 일부 교우들은 이슬람은 전혀 레크리에이션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했다. 한잘라 빈 후자임 알-하나피 교우는 이렇게 말했다. “아부 바크르가 나의 안부와 상황을 물었을 때 나는 낙담의 반응을 보였다. ‘나 한잘라는 위선자가 되었지 뭐예요.’ 아부 바크르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맙소사. 위선자가 되었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도님과 함께 있노라면 사도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상기시켜주셔서 우리는 마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부생활과 가정사로 분주해 저서 사도님께 하신 말씀을 망각해요.’ 내 말을 듣고 아부 바크르가 말하길, ‘나도 그래요.’ 한잘라와 아부 바크르가 함께 예언자를 찾아가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신들을 인도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생명이 달려 있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나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와 더불어 종교생활을 한다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여러분과 악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잘라, 한 시간은 내세를 위해 활용하고 한 시간은 현세를 위해 활용하시오.” (무슬림 2750)

한잘라의 이야기와 본 하디스가 주는 메시지는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여 육체적 피로를 풀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시간과 정신적 무기력과 권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을 취하라는 내용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정신적 외로움과 육체적 피로를 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예언자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상기하지 않는 레크리에이션은 다음의 네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오락으로 무익한 놀이에 불과하지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승마 길들이기, 경주시합, 그리고 수영을

하는 시간은 예외가 되지요.” (사히흐 알-자미이 4534)

예언자께서 몸소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을 지켜본 교우들이 오락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베르 빈 사무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해가 떠오를 때까지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해가 뜨면 교우들은 옛날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이슬람 이전 시대의 추억에 잠겼다. 이를 지켜본 예언자께서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무슬림 2322)

예언자께서는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휴식과 허용된 레크리에이션은 자신의 정신과 육신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그 권리를 돌려줘야한다고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 압둘라 빈 우마르에게 하신 말씀이다.

“압둘라, 내가 듣기로는 너는 밤새도록 예배하고 하루 종일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이 질문에 압둘라가 사실이라고 대답하자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배도 하고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해요. 단식도 하되 음식도 먹어야 해요. 그것은 육신의 정당한 권리에요. 당신의 눈이 당신이 그렇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에 대한 아내의 권리도 있고 손님도 당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부카리 1975)

4. 예언자께서 부인들과 함께 한 레크리에이션

예언자께서는 아내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아내를 사랑하고 기쁨을 함께하여 일상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예언자의 부인 아이샤가 전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밖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춤을 추고 있는 한 아비시니아 여성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소리였다. 나는 함께 나가 관람하자는 예언자의 제의에 따라 나의 뺨을 예언자의 어깨에 얹고 구경을 하였다. 재미있었나는 예언자의 질문에 더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는 발이 부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여 주셨다.” (실실라 7/818)

다음은 다른 전언에 있는 아이샤의 이야기다. “예언자께서는 나의 침실 문에 서서 아비시니아 사람들이 모스크에서 투창을 가지고 춤추는 장면을 구경하면서 내가 그 장면을 구경할 수 있도록 옷으로 나를 가려줘서 예언자의 어깨 너머로 그들의 춤을 관람하였다. 예언자께서 내가 끝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다.” (가야트 알-마람 385)

1) 아내를 기쁘게 하여 주기 위해 모른 척 한 예언자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에게 가장 숭고한 도덕률과 가장 훌륭한 매너를 심어주셨다. 예언자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상처를 주신 적이 없으며 누가 자신에게 불쾌한 언행을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넘어가면서 그에 대한 반감도 갖지 않으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다. “예언자께서 내 집에 오셨을 때 두 소녀가 노래를 하고 있었다. 예언자께서 자리에 앉더니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셨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아부 바크르가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사탄의 소리가 예언자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아니니?’ 예언자께서는 고개를 그에게로 돌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세요.’ ”

(이븐 힌반 2504)

2) 아내를 행복하게 하여 주려는 예언자

무슬림은 언제나 상쾌한 기분에 상냥한 마음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예언자께서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대화를 나누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와 부인 아이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공동묘지를 다녀오셨을 때 나는 그분에게 이

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머리가 아파요.”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나도 머리가 아파요. 혹시 당신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당신의 시구를 씻고 천으로 싼 후 당신을 위해 예배하고 매장까지 다 하리다.” 이런 일이 있을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언자께서는 중병을 앓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이븐 힌반 6653)

예언자께서는 항상 상쾌하고 기분 좋은 가정생활을 유지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와 부인 아이샤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다. “예언자께서 사우다 부인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요리한 음식을 가지고 예언자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 음식을 내놓으면서 드시라고 하자 사우다는 사양하였다. 그래서 나는 먹으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만일 먹지 않으면 얼굴에 음식 소스를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였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아이샤는 자신의 손에 소스를 묻혀 사우다의 얼굴에 발랐다. 그러자 사우다도 아이샤의 얼굴에 그렇게 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언자께서는 웃기만 하셨다.” (실실라 7/363)

3) 아내에게 항상 미소와 웃음을 보인 예언자

미소와 웃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다. 예언자께서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면 함께 웃고 함께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형제 앞에서 미소를 짓거나 웃는 것은 보상의 근원이지요.”
(아담 무프라드 684)

아이샤는 예언자에게 자신의 처녀성 관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님, 당신이 어떤 계곡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의 나무 열매는 사람들이 따먹어 열매가 없으며 다른 한 그루의 나무 열매는 열매가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말을 타고 그 계곡에 간다면 어느 쪽 나무에 당신의 말을 매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열매가 달려있는 그 나무에 나의 말을 매겠소.” 아이샤는 자신이 바로 예언자께서 유일하게 동정녀와 결혼한 부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한 것이다. (부카리 5077)

5. 이슬람의 친교와 동정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증표들 중에 하나는 너희 자신에게서 배필을 지으시고 그 배필과 함께 평안하게 살게 하고 서로 간에 사랑과 자비가 넘치도록 하셨느니라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느니라(30:21)

이슬람은 합법적으로 인간에게 부합하는 것이라면 누구와도 거래를 하고 협력하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자제되지 않는 비합법적 방법에 의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행위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슬람에서의 성의 문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인간의 본능인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범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규범이다. 이 규범 안에서의 성생활은 부부 각자의 신성한 권리이다. 이 규범은 각 개인의 안전한 성생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의 타락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

이슬람은 능력이 있을 경우 서둘러 결혼할 것을 권장한다. 그

래야만 눈이 보호되고 성이 성기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젊은이들이여, 능력이 되거든 서둘러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이 보호되고 성기가 보호됩니다.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성욕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식을 해야 됩니다.” (부카리 5065)

이슬람은 독신주의나 금욕주의를 배제한다. 속세를 떠나 출가하는 것도 배제한다. 그래서 예언자께서는 현세의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어떤 한 교우가 독신으로 살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예언자께 부탁한 적이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다.

“세 교우가 예언자 집을 방문하여 부인에게 예언자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물었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언자와 달라요. 그분께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분이예요.’ 한 교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잠을 새워가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단식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절대 여성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 온 예언자께서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였소? 하나님께 맹세

하지만 나는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화시킬 봐 걱정이요. 나는 단식도 하고 음식도 먹으며, 휴식도 취하고 아내와 성생활도 해요. 이러한 나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아닙니다.’ ” (무슬림 1401)

이슬람은 결혼을 신앙생활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아내와 성생활을 하는 것도 일종의 자선이지요.”

이 말을 들은 교우들이 예언자에게 질문하였다. “사도님, 자신의 아내와 성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까?”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다른 여성과의 성생활은 죄이지만 자신의 아내와의 성생활은 보상받을 일이지요.” (무슬림 1006)

1.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성실성

아내가 성 관계를 갖고 싶은 기미가 보일 때 남편은 아내의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예언께서는 가르치셨다.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남자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 성적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베르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한 여성이 예언자

에게 호소하자 예언자께서는 자이납 집으로 갔다. 예언자께서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탄의 유혹에 의해 여자는 남자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여자를 본다면 서둘러 아내에게로 가시오. 아내도 그녀와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티르지미 1158)

2. 아내를 보살피는 예언자의 마음

남자는 아내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가능한 빨리 귀가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정말로 장거리 여행은 힘들고 피곤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물을 갈아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카리 3001)

3. 아내와 지속적인 애정관계를 유지한 예언자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아내에게 선물을 하시오. 선물은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
들어주지요.” (티르미지 2130)

여행에서 돌아와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한 전언은 다음과 같다.

“여행을 할 경우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여 돌아오시오.”
(이븐 힙반 1/316)

4. 아내에 대한 예언자의 관심과 배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것은 남편의
당연한 의무다. 사탄은 항상 인간을 해치기 위해 주시하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지면 인간을 비윤리적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 다
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눈이 간음을 하지요. 금지된 것을 쳐다보는 것이지요. 귀가 간
음을 하지요. 금지된 것을 듣는 것이지요. 혀가 간음을 하지요. 낮
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지요. 손이 간음을 하지요. 금지된 것을
만지는 것이지요. 발이 간음을 하지요. 금지된 곳으로 걸어가는 것
이지요. 마음이 간음을 하지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지요.” (무슬림 2657)

이와 관련하여 예언자께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모범

을 남기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남긴 이야기다.

“여신도들이 이주하여 예언자에게 맹세했을 때 예언자께서는 그녀들의 맹세를 수락하셨다. 그리고 예언자께서는 절대로 어떤 여성과도 악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븐 마자 2342)

5. 예언자의 아내들에 대한 믿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사회적 지휘를 갖게 되는 사람은 시기와 비난과 적대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선자들이 아이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날조하여 허위로 퍼트린 사건이 있었다. 이 ‘이프크’ (ifk) 사건은 예언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무슬림들이여, 나의 아내를 험담하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나의 아내는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아내입니다.” (부카리 4750)

6. 예언자의 아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표현

카디자는 예언자의 삶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아내였다. 예언자는 카디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예언자의 다른 어떤 부인들보다 카디자에게 제일 많은 질투심을 느꼈습

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께서 그녀에 관하여 자주 언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2435)

다음은 예언자께서 부인 카디자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녀의 사랑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사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카디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여성은 없는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언자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나에게 그녀보다 더 훌륭한 여성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을 때 그녀는 나를 믿었고 사람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갈 때 그녀는 자신의 재물로 나를 위로했으며 내에게는 그녀에게 출산한 아이들만 있어요.” (부카리 1575)

7. 아내 앞에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한 예언자

이슬람은 무슬림들에게 높은 윤리와 도덕률, 고상한 성품과 청결, 그리고 청결과 위생을 요구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전과 후 물로 청결하게 하시

오.” (무슬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더 좋고 더 청결합니다.”

(아부 다우드)

8. 아내의 감정에 대한 예언자의 배려

부부간의 성생활은 상호 애정과 사랑을 교류하는 정신적·육체적 행위다. 그러므로 준비가 되지 않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은 에티켓이 아니다. 한발리 법학파인 이맘 이븐 꾸타다는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아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관계를 시작하지 마시오. 아내가 만족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무그니 8:136)

이뿐만 아니라 아내가 오르가슴이 되기 전에 아내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예언자께서 강조하셨다.

9.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정열

진실한 사랑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시들거나 변동이 없이 한결 같아야 한다. 무슬림은 예언자의 모범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배워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르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생리 중에 있

는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언자의 부인 아이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리 중에 있을 때 나는 예언자의 머리를 빗어주곤 하였으며 그 기간에 예언자께서 이티카프(itikaf: 모스크에서 체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예언자의 머리를 감아주곤 했습니다.’ ” (부카리 2030)

10. 아내와의 성생활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 예언자

부부생활의 비밀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금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나쁜 사람은 아내와 성생활을 하고 나서 아내의 비밀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무슬림 1437)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야지드의 딸 아스마가 예언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한 것을 다른 사람과 의논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했던 것을 어느 누구에게 알려줘도 될까요?”

예언자께서 하신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도님, 말이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남편과 아내는 길에서 만난 두 악마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섹스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르와 알-갈릴 7/73)

11. 아내를 애칭으로 불러준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내 아이샤(A' isha)를 아이쉬('Ai' sh) 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셨다. 이 애칭은 ‘살아 있는’ 뜻을 담고 있다. 어느 날 예언자께서 아이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분은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말에 아이샤가 말하길, “사도님,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보실 수 있네요.” (부카리 6201)

때로는 후마이라(Humaira)라는 애칭도 사용하셨다. 이 단어는 불그스레한 볼에 하얀 피부색의 여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실실라 3277)

12. 한 이불 속에서 휴식을 취한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비록 아내가 생리를 하는 기간에도 한 이불을 덮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셨다.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아내와 자리를 함께 하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면서 아내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아내를 사랑하셨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아이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밤중 예배를 드릴 때도 나 가까이서 하셨고 비록 내가 생리 중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슬림 514)

아이샤가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다. “예언자께서는 내가 생리 중에 있을 때면 나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서 꾸란을 암송 하셨습니다.” (부카리 297)

13. 아내를 목욕시켜준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내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애쓰셨다. 아이샤의 말을 빌리면 예언자께서는 아내를 목욕시켜 주시곤 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아이샤의 말이다. “나는 사도님과 함께 목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의 물그릇을 사용했는데 예언자께서 달려가 먼저 그 물을 사용할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내가 사용할 물 좀 남겨 놓으세요. 내가 사용할 물 좀 남겨놓으세요!’” (나사이 412)

14. 아내에게 키스한 예언자

배우자에 대한 키스는 사랑의 전도사다. 아내를 기쁘게 하여 화목하고 분위기 넘치는 가정을 만들려면 아내에게 키스하는 습관을 드려야 한다. 일터에서 귀가 할 때도 키스를 하면서 아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였다는 마음을 보여야 한다.

결혼 후 성생활은 대단히 중요하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라” 는 것처럼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성공적인 관계는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느 날 예언자께서 나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식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는 자신도 단식 중에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키스를 하셨습니다.”

(실실라 4139)

6. 예언자의 인간적 성품

예언자께서도 우리와 다름없는 한 인간이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언자 직분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인간이 만든 제도에 구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해방시키고 부정한 폭군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 임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실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운명을 타고한 한 인간에 불과하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단 한 분이라는 계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는 어느 무엇과도 비유하지 말라(18:110)

예언자는 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예언자께서는 하나님에게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는 신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분께서는 불가시계의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에게 이익을 안겨 줄 능력도 없으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경우는 다르다.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변경시킬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해칠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지 아니 하노라 만약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는 권능이 내게 있었다면 나는 더하여 복을 받았을 것이며 내게는 어떠한 불행도 없게 하였을 것이라 나는 단지 한 사람의 경고자요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하노라(7:188)

예언자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축복을 받으셨지만 거만을 피우거나 오만한 자세를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다. 그분의 말씀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마리아의 아들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찬양하지 마시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에 불과하니라.’ ” (부카리 3445)

예언자의 성품은 인간적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분 역시 필멸의 한 인간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함마드는 한 사도에 불과하며 그 이전의 사도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느니라 만일 그가 죽거나 피살된다면 너희는 그로부터 등을

돌리겠느냐 등을 돌리자는 자가 있다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내리시니라(3:144)

예언자께서도 다른 인간처럼 허약해지고 아프고 병이 들었다. 병중에 있는 예언자를 방문했을 때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다.

“아프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소나무 잎 하나에 찢려도 아픔을 느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병으로 인하여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업적에 따라 아픈 환자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부카리 5641)

예언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슬픔을 경험하셨다. 그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셨다. 예언자께서는 아들 이브라함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가 중병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의 눈은 눈물로 가득 했고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저의 아들 이브라힘을 데려가시니 저희는 슬픔 뿐입니다.” (무슬림 2315)

예언자께서도 망각을 할 때가 있으셨다. 이와 관련하여 아부 후 라이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두 라카아 절만 하고는 빨리 끝낸 적이 있었다.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은 예배의 라카아 횃수가 단축된 것인지 궁금해 하였고 교우들은 이에 대하여 예언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러자 둘 야다인이란 사람이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사도님, 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라카아 횃수를 단축한 것입니까?’ 이에 사도께서 대답하시길, ‘잊지도 않았고 단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말을 했다. ‘사도님께서 분명히 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물으셨다. ‘둘 야다인이 말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자 사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잊은 빠뜨린 라카아 횃수를 채우셨습니다.” (부카리 482)

예언자께서도 세상사에 대하여 실수를 하신 분이셨다. 어떤 과수원을 지나던 중 종려나무(nakhl)에 가루받이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가루받이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농민들은 가루받이를 그만 두었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단지 내 생각에 불과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흐마드 2/366)

7. 예언자의 인간적 매너

1. 일반 사람들에게 대한 매너

예언자께서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길, “하나님, 저 무함마드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처럼 나도 화를 냅니다. 그러니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저의 거친 말투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제가 내린 벌로 힘들어하는 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부활의 날 그들이 당신 가까이 있게 하여 주소서.”

(무슬림 2601)

2. 법집행 매너

예언자께서는 법집행에 있어서도 인간적이셨다. 그분께서 말씀하길, “나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잘잘못의 시비를 가려달라고 나를 찾아와 자신의 입장에서 변론할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일 그의 변론대로 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다면 그 혜택을 받은 자는 불지옥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부카리 7169)

3. 사회생활의 매너

예언자께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적이셨다. 자신도 결혼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혼을 촉구하고 자손을 두라고 격려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 이전에도 나는 사도들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배우자를 주어 자손들을 갖게 하였느니라 증표와 기적은 사도의 능력이 아니며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각 시대마다 법이 있었노라(13:38)

4. 아내를 위한 인간적 매너

예언자께서는 아내를 위한 복지에 관심을 두셨다. 아내의 명예를 보호하고 아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차단하셨다.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매너는 온건하고 부드러우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명예에 대한 관심과 표현은 두 형태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관심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때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나사이 2557)

5. 관용을 베푸는 성품

사도께서는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를 너그럽게 보아주시면서 가장 훌륭한 매너로 아내들을 대하였다. 그분의 매너는 너무나 훌륭하여 어떠한 긴장도 즉시 안정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나스 빈 말리크가 말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어떤 아내 집에 있을 때 다른 한 아내가 음식을 요리하여 예언자를 위해 한 접시 보내왔다. 예언자와 함께 있던 아내가 음식 접시를 받아들고 온 하인의 손을 때려 땅에 떨어트려 그 접시가 깨지게 만들었다. 이것을 본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어머니께서 질투를 하셨군요.’ 그리고는 깨진 접시를 주어 이 사건이 발생한 아내의 집에 두고 그 대신 새 접시를 음식을 보낸 아내에게 보내셨다.” (5225)

6. 아내에 대한 예언자의 충절

아내에 대한 예언자의 충절과 정절과 사랑은 가장 고상한 성품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매너다. 첫 부인 카디자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예언자께서는 카디자를 칭찬하고 그녀에게 감사해 하였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느 날 나는 너무나 질투심이 나서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카디자 보다 더 훌륭한 아내를 당신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이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대신할 부인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때 카디자는 나를 믿었고 사람들이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갔을 때 카디자는 자신의 재물로 나를 위로하였으며 나에게서는 그녀가 남긴 자식들 밖에는 없어요.”

(부카리 1575)

7. 아내들을 대하는 예언자의 아름다운 매너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부터 예언자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예언자께서는 단 한 번도 여성을 때린 적이 없으셨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예언자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이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어떤 여성도 때린 적이 없고 여성에게 무례한 말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후드 전투 때 꾸라이쉬 부족 사람들이 예언자를 구타하여 예언자의 이빨이 부러지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때 누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였어요. 그때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조롱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비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한 안내자로써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지요, 그들을 안내하여 주소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 (바이하끼 2/622)

8. 아내들을 위한 예언자의 온정

예언자께서는 아홉 번 결혼하셨다. 예언자의 특별한 이유에 의한 결혼이었다. 사우다 빈트 자르아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은 그녀에 대한 예언자의 사랑과 온정 때문이었다. 당시 그녀는 55세로 예언자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이 여인과의 결혼은 메카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사우다는 아름답지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오로지 그녀에 대한 온정 때문이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에서 과부가 된 후 메디나로 온 여인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언자는 그녀와의 이혼도 생각했다. 아내로써 예언자를 위한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자 사우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도님,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당신의 아내로 지켜주세요. 아이사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꾸란 내용이 전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해결의 조건을 두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느니라 해결이 최선이니라. 그녀가 예언자의 아내로 남아 있고자 했던 것은 내세에 가서도 그분의 아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티르미지 3040)

9.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자비

모스크에 들어갔을 때 두 기둥 사이에 매어진 밧줄을 보고 예

언자께서 물으셨다.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지요?”
그러자 누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당신의 아내 자이납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꾸란 낭송이 길어지면 그녀가 잡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이 줄을 제거하십시오. 꾸란 낭송이 길어서 피곤한 자는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나사이 1642)

예언자께서는 아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그래서 예배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언급하신 것이다.

10.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인내

예언자께서는 인내심이 가장 좋으신 분이셨다. 몇 아내들이 예언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마음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눈감아주고 덮어주셨다. 미소를 지워보이고 때로는 웃어주면서 사랑을 베풀었다. 어느 날 아이샤가 예언자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을 때 친정아버지 아부 바크르가 화를 내며 딸을 때린 적이 있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말리셨다. 아부 바크르가 나가자마다 예언자께서 아내 아이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방금 당신을 위해 한 것에 대해 무어라 말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당신 아버지로부터 구해줬지 않아요?”

며칠 후 아부 바크르가 예언자를 방문했을 때 예언자와 아이샤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아부 바크르가 말했다. “두 분의 행복을 나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나요?” 이 말에 부부가 대답했다. “그렇게 할게요. 정말이에요.” (4999)

11.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예언자

다음은 이와 관련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세상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지 어렵게 만들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자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쉽게 그리고 편하게 대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기본 매너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가 나와 하프사에게 음식을 선물했을 때 우리는 단식을 깨뜨리고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예언자께서 우리가 단식을 깬 것을 보았다. 우리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 맛있는 선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자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아무렇지도 않으니 걱정 말아요. 단식을 깨뜨린 날만큼 다음 날 단식을 하면 되요.”

12.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모습

아내에게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물은 자신의 입으로 아내의 입에 넣어주는 한 입의 음식과 한 모금의 물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에 아무 것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아내의 입에 넣어주는 한 입의 음식과 한 모금의 물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요.”

(부카리 4409)

13.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지 않으려는 예언자의 모습

예언자께서는 아내들의 감정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셨다. 그래서 아내들이 행한 것으로 인하여 당황해 하거나 동요하지 않으셨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말하고 있다. “내가 예언자와 함께 여행을 나갔을 때 나의 목걸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예언자께서 그 반지를 찾아주려고 그곳에 머물자 다른 수행원들도 떠나지 않았다. 준비해 간 물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이 아부 바크르를 찾아가 당신의 딸 아이샤 때문에 예언자와 우리가 물도 없는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불평을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나에게 오셨다. 그때 예언자께서는 나의 무릎을 팔베개로 주무시고 계셨다. 그리고 너 때문에 예언자와

사람들이 물이 없는 이곳에 더 머물게 되느냐는 물으셨다. 그리고는 나의 어깨를 때리셨다. 나는 무척 아팠지만 나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는 예언자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동이 트자 예언자께서 잠에서 깨어나셨다. 그런데 마실 물은커녕 예배를 위한 우두할 물조차 없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물이 없을 때 우두를 대신하는 ‘타얌뭉’에 관한 계시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타얌뭉으로 우두를 대신하고 새벽 파즈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목걸이는 내가 타고 갈 낙타에 올랐을 때 바로 그 밑에 떨어져 있었던 목걸이를 발견하였다.” (부카리 330)

14. 생각나게 하는 선물을 아내에게 준 예언자

남편과 아내가 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면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박하향이 나는 꽃을 받는 자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지고 다니기 쉽고 좋은 향기를 풍기지요.” (무슬림 2253)

15. 아내 앞에서 항상 단정한 모습을 한 예언자

단정한 의상과 좋은 향기는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남편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는 이렇게 말하고 있

다. “예언자께서 이gm람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의 머리에서 향수가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이 2692)

아이샤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예언자께서 외출하셨다가 집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하시지요?” 이 질문에 아이샤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언자 시절의 첫술인 시와크(siwak)로 이를 닦습니다.” (이븐 마자 238)

예언자께서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청결한 모습을 보이셨다.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아나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언자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슬림 2330)

16.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남에게 알리는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공개적으로 아내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교우들과 제자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므르 알-아스가 예언자에게 물었다. “사도님께서서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아이샤라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남자들 중에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예언자께서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라고 대답을 하자 그가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입니까?” 이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그

다음으로는 우마르이지요.” (부카리 4358)

17. 아내의 안전을 항상 염려한 예언자

염려는 인간의 본능이다. 예언자께서도 이미 경험한 본능인 것이다. 예언자께서는 아내들이 항상 안전하기를 바랐고 아내들에게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언자께서 사피아 아내를 낙타에 태우고 가는데 낙타가 갑자기 주저앉은 바람에 예언자와 사피아가 낙타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다. 아나스 교우와 딸하 교우가 달려가 별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자신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아내 사우다를 걱정하고 염려하셨다.

18. 내세에 가 있는 아내를 걱정한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내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셨고 특히 아내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그분으로부터 축복 받기를 기도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보며 심판의 날 보상을 받게 되니라 불지옥으로부터 구제된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 이 세상은 단지 환상적인 향락에 불과할 뿐이라(3:185)

그래서 사도께서는 아내들이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셨다. 이와 관련하여 움무 썰마가 이야기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깜짝 놀라 일어나시더니 수브하날라!(subhanallah: 하나님이지여 홀로 찬양받으소서!)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보상과 커다란 피트나(fitnah)를 내리셨습니다. 누가 이 방에서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밤중 예배를 하도록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현세에서는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으나 내세에서는 벌거벗게 될 것입니다.

19. 아내에 대한 염탐을 금지하고 아내를 신뢰한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내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교우들과 체자들에게는 아내를 불신하지 말라고 충고하셨다. 예언자께서는 이를 몸소 실천하셨다. 먼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아내에게 미리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 남편을 맞이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이러한 예언자의 매너는 아내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다. (아부 다우드2778)

20. 아내에게 관대하신 예언자

예언자께서 아내들에게 무척 관대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다면 그 축복을 아내들과 함

께 누려야 합니다.” (사히흐 알-자미이 358)

예언자께서 자신이 교우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몸소 실천하셨다. 이와 관련한이야기를 아나스가 말하고 있다. “옴무 술라이만이 잘 익은 신선한 종려나무를 예언자에게 선물로 보내왔을 때 본인은 몇 개만 맛보고 모두 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히흐 알-마와리드 2145)

21. 아내에 대한 예언자의 겸허한 품성

누구든 자신을 낮추며 겸허한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위상을 높여주신다. 예언자께서는 자신이 주변 사람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신분이 더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낮추어 본 적이 없으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보여준 윤리적 보편적 매너였던 것이다. 아나스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한쪽 무릎을 꿇어 아내 사피아가 낙타에 쉽게 오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부카리 4211)

22. 아내의 감정을 파악하는 예언자의 세심함

예언자께서는 아내들이 어떤 마음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 예언자께서 아

이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에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아요.”

이 말을 듣고 아이샤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아느냐고 묻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나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할 때면 당신은 이렇게 말했지요. ‘무함마드의 주님께 맹세하지만’ 이라고 말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예언자 아브라함의 주님께 맹세하지만’ 이라고 말했지요.” (부카리 5228)

8.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사회적 매너

1.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상냥함

예언자께서는 상냥한 분으로 매사에 상냥하셨으며 특히 아내들에게는 더욱 상냥하셨다. 아이샤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다.

“아이샤, 매사에 상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가정의 행복은 상냥함이니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냥하고 그것으로 가정을 가득 채우시오.” (타그립 2669)

아내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간에 아내에게 명령을 해서도 안 된다.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어떤 일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거칠게 대해서도 안 된다. 살다보면 부부간에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자제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샤가 이야기하고 있다. “한 유대인 단체가 예언자를 방문하여, 앳쌌 알라 이쿰(assam alaikum: 독약 먹고 죽어라)이라고 하면서 예언자를 최악으로 모욕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사용한 문구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다. 그러자 예언자

께서는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샤, 진정해요.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좋은 매너를 보이는 자를 사랑해요.”

이 말을 듣고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님, 저들이 당신에게 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했지 않아요. ‘당신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카리 6401)

2. 가족을 위해 봉사한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내를 위해 이런저런 가정사를 도우셨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아이샤가 상세히 말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하물며 자신의 신발과 옷까지도 스스로 수선하셨습니다.”

3.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챙기신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자신의 관한 일은 아내에게 챙겨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챙기셨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아이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스스로 옷을 챙겨 입으셨고 직접 양 젖을 짜는 등 자신의 관한 거의 모든 매사를 본인 스스로 챙기셨습니다.” (사히흐 알-자미이 496)

4. 아내를 위한 아낌없는 지출

예언자께서는 교우들과 제자들에게 아내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하는 것을 무슬림의 기본 원칙으로 그리고 기본 매너로 가르치셨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너그러운 분으로 아내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티르미지 2799)

어떤 형태의 자선이 가장 훌륭한 자선이라는 질문을 받은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내를 위해 지출한 돈이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되지요.”
(무슬림 995)

아내의 필수품을 위해 지출한 것은 아내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의 당연한 의무다. 누가 예언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사도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자신이 먹는 것으로 아내를 먹이고,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아내에게 입히고, 아내의 얼굴에 손을 대지 말고, 아내에게 욕하지 말고, 특히 집 밖에서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부 다우드 2142)

5. 아내를 항상 염려해준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아나스가 전하고 있다. “예언자께서 아내와 함께 낙타를 타고 여행 중일 때 한 소년이 노래를 불러 낙타를 빨리 달리게 하자 예언자께서 그 소년에게 낙타가 천천히 가도록 노래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안전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카리 6210)

6. 아내를 위한 예언자의 인내심

예언자께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셨다.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미소를 잊지 않으셨다. 다음은 우마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꾸라이쉬 부족 출신의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들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메디나의 안사르 부족 출신의 여성들은 남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우리의 여성들이 안사르 부족 출신 여성들의 본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어느 날 나의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충격을 받고 아내의 그러한 처신에 호통을 쳤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왜 나에게 호통을 치지요? 예언자의 아내들도 그렇게 해요. 하물며 어떤 아내는 예언자에게 낮 동안 내내 차갑게 대하고 당당하게 맞서요.’ 이 말을 나에게 더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

내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녀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우마르는 곧장 자신의 딸이자 예언자의 아내인 하프사 집으로 가서 그가 아내로부터 들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산 자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예언자를 힘들게 하거나 그분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대들어서는 안 된다.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요구하렴. 그럼 내가 도와주마.’ ” (부카리 5191)

7. 아내가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 준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내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충족시켜 주셨다. 아이샤가 예언자에게 물었다. “나를 제외한 당신의 모든 아내들이 쿤야(kunya: 별명)를 갖고 있는데 나는 어떤 쿤야를 가지면 될까요?” 이 질문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셨다. “움무 압둘라(Umm Abdullah: 압둘라의 어머니)라고 하세요.” 그 이후부터 아이샤는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불렀다. “(실질라 1/255)

8. 아내를 보살핀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아내들을 보살피셨고 특히 아내들이 병이 났을 때는 더욱 그랬다. 아이샤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언자의 아내들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언자께서는 꾸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장들을 암송하여 주셨습니다.” (무슬림 2192)

9. 아내에게 인사한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침 파즈르 예배를 마친 후 교우들과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해가 뜨면 예언자의 각 부인들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아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10. 아내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예언자.

꾸라이쉬 부족 불신자들과의 평화조약 기간 중에 예언자께서는 교우들에게 자신들의 가족을 도살하라고 명령하셨다. 교우들은 우무라(umrah: 소순례)를 하고 싶은데 메카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언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세 번이나 똑 같은 지시를 내렸지만 아무도 예언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예언자는 아내 움무 쌀라마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언자의 말을 듣자마자 움무 쌀라마는 예언자에게 밖으로 나가 아무도 모르게 가족을 도살하여 신의 제단에 바치라고 자문을 하였다. 예언자는 아내의 자문을 받아들여 즉시 그렇게 하셨다. 꿈쩍도 안했던 교우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였다.

11. 아내로부터 허락을 요구한 예언자

예언자의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는 아내들에게 항상 공평하셨다는 것이다. 하물며 몸이 아플 때도 그러하셨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샤가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공정을 잃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병세에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방문할 수 없어 미안해요. 그러니 아이샤 집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 그러자 다른 아내들이 예언자의 요구에 동의하고 아이샤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다. (아부 다우드 2137)

다음은 다른 전언에 언급된 예언자의 말씀이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내일은 어느 집에서 머무를까요? 내일은 어느 집에서 머무를까요?” 예언자께서는 아이샤 집에 가는 차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 예언자께서 기대했던 대로 다른 아내들이 동의하였고 그래서 그분은 아이샤 집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아이샤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나의 차례가 아닌 날 나의 집에서 얼굴을 나의 가슴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카리 890)

12. 아내를 배려한 예언자

사도께서는 언제가 아내를 배려하셨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나스가 말하고 있다. “이웃 사람이 예언자를 위해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예언자를 초청하였다. 그러나 예언자께서는 그 이웃에게 아내를 가리키며 아내와 함께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 초청자는 예언자 혼자만 오시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가지 않겠소.’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의 뜻에 따랐고 그래서 예언자께서는 아이샤와 함께 식사 초대에 참석하셨다.” (무슬림 2037)

13. 아내의 실수나 잘못을 시정한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시정을 하셨다. 어느 날 아이샤가 이렇게 말했다. “사피아는 키가 작고 ...” 이것은 사피아를 낮추기 위한 바르지 못한 언행이었다. 예언자께서 아이샤에게 즉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바닷물과 혼합된다면 바닷물 전체를 더럽힐 것이요.” (타르기브 4/8)

하프사가, “사피아는 유대인 남자의 딸이지 않아!” 라고 한 말을 사피아가 듣고 울었다. 예언자께서 왜 우느냐고 사피아에게 묻자 그녀가 대답하길, “하프사가 나를 어떤 유대인 남자의 딸이라고 말해서 울었어요.” 그러자 예언자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길,

“당신은 어떤 예언자의 딸이요. 그리고 당신의 삼촌은 예언자 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예언자와 결혼을 했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하프사가 당신을 그렇게 비하할 수 있겠소.” 그리고 예언자께서 하프사에게 말씀하시길, “하프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티르미지 3894)

14. 아내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준 예언자

모두가 화목한 부부생활이 영속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서로가 서로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 준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위한 이상적인 매너다. 어느 날 예언자께서 아이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샤가 무척 늦었다. 예언자께서 아내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늦었어요?” 부인이 대답하길,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온 꾸란 낭송을 듣고 있다가 늦었어요. 그토록 아름다운 꾸란 낭송을 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언자께서 그곳으로 갔다. 그런데 예언자께서는 아이샤보다 더 늦게 돌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토록 아름답게 꾸란을 낭송한 사람은 아부 후자이파로부터 해방된 살림이에요.” (타크리즈 알-이흐야 1/371)

15.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셨다. 아이샤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 나에게 물으셨지요. ‘당신은 현세에서처럼 내세에 가서도 나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소?’ 이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고말고요.’ ” (실실라 3011)

16. 아내에게 항상 친절했던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다감하셨다. 부인에게는 더욱 그랬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샤가 말하고 있다. “예언자께서는 아내에게 언제나 다정다감하셨고 친절하셨습니다. 아내를 보면 항상 미소를 짓고 웃으셨지요.” (자미이 알-사기르 6661)

17. 아내에게 관용을 베푸는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푸는 분이셨지만 아내에게는 더욱 그러하셨다. 고의적으로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에게 관용을 베푸신 분이다. 예언자께서 메카를 정복하자 예언자를 박해했던 자들이 예언자 앞에 나타났다. 예언자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너그러운 형제이자 너그러운 조카입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돌아가시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예언자를 학대하고 박해했던 이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예언자께서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적에게까지 관용을 베푸신 예언자의 관용은 아내들에게는 더욱 더 그러하셨다. 예언자께서 아내에게 점심으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 아내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언자께서, “그럼 단식을 하겠소.” 라고 말씀하셨다. (나사이 2323)

18. 아내가 원하는 것을 챙겨준 예언자

예언자께서는 금지된 것이 아니면 아내가 바라는 것을 마련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 분이셨다. 아이샤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교우들께서는 아내들과 함께 대순례(hajj)와 소순례(umrah)를 했는데 나만 아직 못했어요.” 그러자 예언자께서 아내에게 물으셨다. “당신이 처음 도착했을 때 따와프(tawaf: 카오바 주변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것)를 안했던가요?” 하지 않았다고 아이샤가 대답하자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남동생과 함께 타님(tan'im) 지역으로 가서 소순례를 하겠다는 이흐람(ihram: 순례를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순례를 위한 준비)을 하시오.” (부카리 1762)

나가면서

남녀 간의 결혼은 사랑과 상호존중과 자비에 근거한 결혼을 추구하고 있다. 여성은 아내로써 남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아내에게 자비를 베풀지 모르고 아내를 존경할 줄 모르는 자는 우리의 구성원이 아니지요.” (이븐 힙반 3377)

이슬람에는 남녀 간 성관계로 인한 의 문제가 없다.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부족함을 충족시키고 여자는 남자의 부족함 점을 충족시켜 남녀 모두가 온전한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슬람은 여자의 부족한 점을 충족시켜야 할 남자의 의무와 남자의 부족한 점을 충족시켜야 여자의 의무를 두고 있다. 여성에 대한 남자의 권리와 남자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에 대한 남자 의무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무가 조화롭게 충족될 때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부부생활이 가능하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짝을 이루게 하여 아들

과 자손을 갖게 하고 너희를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서는 좋은 것을 주시노라 그런데도 저들은 헛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 하노라(16:72)

이슬람이 남성에게 허용하면서 여성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이와는 반대로 여성에게는 허용하면서 남성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본능에 근거한 것이다.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본성이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휘발유 자동차에 디젤을 사용한다면 이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겠는가! 이와는 반대로 디젤 자동차에 휘발유를 사용한다면 디젤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남자와 여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르다.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성이 할 일이 있다. 남성이 해야 할 일을 여성이 하고 여성이 해야 할 일을 남성이 한다면 각자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원만하지 못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애정과 사랑 그리고 로맨스는 예언자께서 몸소 실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내와 여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애정이요 사랑이며 로맨스다. 이 세상 모든 남성이 예언자의 모범을 따른다면 불행할 여성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각자의 의무와 권리는 이슬람법이 포괄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남자와 여자가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현세와 내세에서 이들에게 큰 보상을 내리실 것이다.

최영길 교수의 이슬람 및 아랍어 총서

• 저서 및 역서

01. 아랍어를 배우는 길(1978. 11, 이슬람문화센터, 207쪽; 사우디)
02. 생활아랍어 회화(1982, 도서출판 콘바사폰, 617쪽)
03. 하디스 40선(1982. 12. 24, 신생사, 184쪽)
04. 이슬람의 거래와 관습(1979, 이슬람문화센터, 173쪽; 사우디)
05. 기본아랍어회화(1980. 9. 16, 어학사, 255쪽; 서울)
06. 아랍어문법해설(1982. 2. 1, 명지대 아랍어문학과, 212쪽)
07. 이슬람의 생활규범(1985, 명지대출판부, 450쪽)
08. 16억 이슬람인의 역사와 문화(1996, 송산출판사, 465쪽)
09. 이슬람문화사(1990, 송산출판사, 434쪽)
10. 꾸란의 이해(1995, 성천문화재단, 207쪽)
11. 꾸란해설(1989, 송산출판사, 1370쪽)
12. Arabic Language I (1986,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200쪽; 공저)
13. Arabic Language II (1988,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200쪽; 공저)
14. 이슬람문화의 이해(1997. 2. 28, 신지평, 252쪽 ; 서울)
15.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해설(1997. 4. 24,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403쪽; 사우디)
16. The Holy Quran -Korean translation of the meanings, commentary and reading(1997, Anyang Rabita Masjid)
17. Drusu al Lugat al Arabiya(1997, Islamic University, Medina; 사우디)
18.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98. 7. 27, 신지평, 600쪽)
19. Islamic Thoughts(1998. 10. 1, 송산, 232쪽 ; 서울)
20. The Expanse of the Religious Thoughts(98. 10. 1, Songsan, 222쪽)
21. 아랍어-한글사전(99. 3. 20, 송산, 1630쪽)
22. 이슬람의 이해(99. 3. 20, 신지평, 416쪽)
23. 이슬람문화(99. 9.5, 도서출판 알림, 434쪽)
24. 이슬람 교리의 법규(2000. 4. 10, 도서출판 알림, 145쪽)

25. 라마단(2000. 11. 12, 도서출판 알림, 370쪽)
26. 무함마드 어록(2001. 6. 27,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194쪽)
27. 이슬람(단식과 성지순례; 2001, 10. 30, 알림, 239쪽)
28. 이슬람의 전통과 생활관습(2002.11.25, 알림, 384쪽)
29. 꾸란 단어와 어휘해설(2003, 알림,)
30. 꾸란과 이슬람(2004.10.15, 알림, 181쪽)
31. 이슬람의 위인들(2004.11.05, 알림, 235쪽)
32. 예언자 무함마드(2005. 02. 28, 명지대학교 출판부, 130쪽)
33. 아랍어(2005 ,02.28, 명지대학교 출판부, 244쪽)
34. 무함마드와 이슬람(2005. 03. 05, 도서출판 알림, 282쪽)
35. 삼위일체 아랍어(2005. 09. 01, 도서출판 알림, 299쪽)
36. 꾸란 어휘사전(2005.12.10, 도서출판 알림, 1285쪽)
37. 이슬람과 성서의 종교(2006. 02.28, 명지대학교 출판부, 242쪽)
38. 이슬람국가에서의 비무슬림의 권리(2006, 05, 15, 알림, 221쪽)
39. 인간 무함마드(2006,07,25, 알림, 578쪽)
40. 실전 아랍어(2006, 08, 10, 명지대 출판부, 255쪽)
41. 아랍어와 아랍문화((2007, 02, 28, 명지대 출판부, 212쪽)
42. 꾸란과 해설(2007,06,01,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905쪽)
43. 이슬람(원리와 개론; 2007. 9.1, 도서출판 알림 240쪽)
44. 한국인을 위한 삼위일체 아랍어((2007, 08, 20, 명지대 출판부, 246쪽)
45. EBS 입에서 톡 아랍어(2008. 2. 1, 도서출판 문예림 262쪽)
46.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1권(2008. 2. 15, 알림, 297쪽)
47.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2권(2008. 7. 10, 알림, 298쪽)
48.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3권(2008. 10. 25 알림, 287쪽)
49.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4권(2008. 12. 5 알림, 286쪽)
50.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5권(2009. 4. 24 알림, 244쪽)
51.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2009. 5. 4 알림, 335)
53. 이슬람교가 태어난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2009. 그레이트북)
54.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1권(2010. 03. 10, 알림, 443쪽)

55.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2권(2010. 07. 05, 알림, 451쪽)
56. 꾸란 주해(2010. 05. 25, 세창, 946)
57.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2권(2010. 07. 05, 알림, 512쪽)
58. 이슬람문화(2010. 08. 25, 알림, 512쪽)
59.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2011. 07.30, 세창 408쪽)
60. 한국어-아랍어 소사전(2012, 04, 25; 문예림 193쪽)
61. 하람 성원(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2. 예언자 성원(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3. 키스와(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4. 한글 - 아랍어 소사전(2012. 12, 문예림 200쪽)
65. 나의 이슬람문화 체험기(2012, 05, 30: 한길사 277쪽)
66. 노래로 배우는 아랍어(2013.05 30 문예림 246쪽)
67.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2013.06.30: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대학교 통번역센터, 376쪽)
68. 아랍어-한국어, 한국어-아랍어 입문소사전(2014.01.03, 문예림 1192)
69. 성꾸란, 낭독법칙, 의미, 해설(2014. 알림, 30권 시리즈)
70. 인생교과서 무함마드(2015, 21세기 북스, 212)
71. 이슬람과 에티켓(2015, 사우디아라비아 275쪽)

- 학력 및 전공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 전공: 문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 전공: 문학석사)
- 사우디 아라비아 왕립 이슬람대학교 (이슬람학 전공)
- 수단 움두르만 국립 이슬람대학교(이슬람학 전공: 문학박사)

- 수상

- 1970년 박정희 대통령 메달 수상
- 1986년 서울 아시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포상
-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 국제번역상 수상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표창
-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녹조근정훈장

- 경력

- 사우디 아라비아 제다 이슬람문화원 교수
- 사우디 아라비아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 대학교
 객원교수
- 성천문화재단<동서인문고전강좌> 교수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 (주)IMEX 이슬람 콘텐츠 개발 자문 및 검수위원
-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이슬람회의기구 집행위원(말레이시아)
- 서울대, 연대, 서강대 강사
- LG전자 자문교수
- 사단법인 그린레이저 숲사랑 소년단 이사장
- 사단법인 국제자연환경 교육재단 이사장
- (현)전세계이슬람총연맹 최고회의 위원(사우디아라비아)
- (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명예교수
- (현) K.I.H.F 회장
- (현) 재단법인 이슬람교 이사장